

# 공공도서관의 구술기록물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ral Records Management for Korean Public Libraries

이은비(Eun-Bee Lee)<sup>1</sup>, 정연경(Yeon-Kyoung Chung)<sup>2</sup>

E-mail: leb@ewhain.net, ykchung@ewha.ac.kr



<sup>1</sup> 제 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정책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  
<sup>2</sup>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논문접수 2021-04-19  
최초심사 2021-04-20  
게재확정 2021-05-04

### ORCID

Eun-Bee Lee   
https://orcid.org/0000-0002-2114-7285  
Yeon-Kyoung Chung   
https://orcid.org/0000-0001-7125-9827

###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본 논문은 이은비의 석사학위논문 「공공도서관의 구술기록물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21)를 요약하고 수정·보완한 것임.

### 초 록

구술기록의 보존과 관리는 국가 유산의 지식 창출과 활용이면서 지역 문화의 가치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공공도서관은 구술사를 통해 국민의 삶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기록을 수집, 활용, 보존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구술기록물 관리에 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문헌연구와 현재 구술기록을 수집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담당자의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술기록물 관리를 위한 정책과 매뉴얼 수립, 공공도서관 업무 담당자들의 구술기록물 수집·활용·보존·관리에 대한 전문 능력을 고양시키는 개별 교육프로그램 마련, 지역의 구술사를 활용한 홍보 전략의 개발, 구술기록물 보존을 위한 장기적 환경 마련 및 활용 다각화, 구술기록물의 수집·활용·보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인력 배치를 제안하였다.

### ABSTRACT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oral historical records are for creating and utilizing knowledge of national heritage and promoting the value of local culture. Furthermore, one of the missions of the public libraries is to realize the general utilization of records by reexamining people's lives and employing oral historical records to preserve their rights and benefits.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oral records in public libraries through literature reviews,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public library staff to gather detailed opinions on oral records in public libraries. Based on the discussions concluded in this study, establishing policies and manuals for oral records management, sufficient professional workforce, specialized education programs for staff development in collecting, preserving, recording and managing oral historical records, public relations strategies, and preparation of a long-term preservation environment for thorough digitalization were suggest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llection, utilization,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oral records in public libraries.

**Keywords:** 구술기록, 공공도서관, 지역사회, 구술사, 기록관리  
oral historical records, public library, local history, oral history, records management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구술기록은 생생한 기억과 살아있는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인간의 본질적 산물이다. 이 성격으로 인해 구술기록은 문서자료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가치와 태도, 생각, 행동의 이유 등을 설명할 수 있으며, 단절된 이야기들의 고리를 잇는 현대적 언어로 기능하고 있다(Gittins, 1983).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문화와 역사, 지역 교육에 일조하는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는 공간으로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으며 일부 공공도서관은 지역민이 지역 사회의 주체로서, 개인의 기록을 지역의 공동 기억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통합된 기억을 그들의 역사로 빚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역 사회의 기록물은 소실성이 강한 반면 보존성이 희박하여 보관하기가 매우 어렵다(김덕목, 2016). 더군다나 지역 기록물은 법적으로 반드시 보존해야만 하는 행정기록이 아니고, 문화적 가치가 높은 역사 기록도 아니기에 주민들의 일상을 기록한 공동체 기록을 보존하기 쉽지 않은 형국이다(엄소영 외, 2017). 따라서 지역민들의 삶의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와 과학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강조되면서 사라져 가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복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도서관의 단행본 간행, 구술채록, 사진 전시, 구술 프로그램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서와 연구자 뿐만 아니라 지역 단체 및 시민들까지 도서관의 구술채록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김귀옥, 2016). 하지만 기관의 구술채록 과정에서 생산된 구술기록 간행물 외의 원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누구의 구술이 어디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그 실상을 알 수 없고, 수집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재로 기록물들이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정연경 외, 2019).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에서 간행된 구술기록은 그 자체로 해당 지역의 정체성, 문화적 특징, 역사를 담고 있는 중요 자료이자 근거이므로 각 도서관이 구술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활용·보존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윤택림,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술기록물의 수집·생산·정리·활용·보존·처리 현황을 조사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국내 사례와 현황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각 지역 도서관의 구술기록을 관리하는 기초자료로서 구술기록물의 적극적인 수집·활용·보존의 토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1.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구술기록물 수집·활용·보존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구술기록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통해 구술기록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특히, 국내외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된 구술기록 관련 연구에서 공공도서관 구술기록물 관리의 의의와 그 이론적 틀을 점검하였다. 나아가 국내 공공도서관의 구술기록물 관리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 공공도서관 구술기록 현황을 조사할 대상기관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타당성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정연경 외, 2019)와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구술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 12개 도서관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12개 도서관에 우선으로 설문조사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설문조사에 응한 11개 기관에 설문지 응답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설문에서 심층 면담 참여를 확인한 6개 도서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지와 심층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구술기록물의 관리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1.3 선행연구

그간 국내외에서 수행된 구술기록물에 관한 연구는 크게 구술기록물의 수집과 생산에 관한 연구와 구술기록물 정리와 활용에 관한 연구, 그리고 구술기록물의 보존과 처리에 대한 연구로 나뉜다. 먼저 구술 수집·생산에 관한 연구로 조용성(2010)은 구술기록이 나름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아카이브 수집정책과 구술사의 접목에 있어서 실무적 고민을 전제로 한 세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최정은(2011)은 아키비스트가 직접 구술기록을 생산·수집함으로써 사회적 기억을 기록화하는데 주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배은희(2018)는 필수적으로 생산되어야 할 구술기록이 체계적으로 보관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선영란(2019)은 한국 근현대 역사적 사건이 규명을 위한 구술증언 수집을 담당했던 공공기관과 단체의 구술자료 관리와 보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정연경 외(2019)는 구술자료 관리 및 이용에 관련하여 구술자료 관련법과 제도 정비,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매뉴얼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이후, 정연경과 이재영(2020)은 국립도서관의 구술컬렉션 구축 시의 핵심 요소를 법령, 조직, 수집, 정책, 서비스, 컬렉션, 교육 및 협업, 기금 및 후원 등으로 제시하였다. 국외의 경우, Kargdo(2008)는 공공도서관이 사회학과 인류학, 역사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 도서관 인력을 채용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Yap과 Barsaga(2018)은 구술역사센터와 도서관 기록보존소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 정의된 지침과 절차, 홍보와 마케팅을 제안하였다.

구술자료 정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로 이호신(2007)은 구술기록의 생산과정의 방법론적 접근과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은영과 강규형(2012)은 구술기록의 논리적 정리 방안에 국내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국외기관으로는 싱가포르 공문서관 구술사센터를 선정하여 각각의 장점과 개선점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김명훈과 한지혜(2013)는 구술기록의 정체성 및 기록품질을 확보한 온라인 서비스 수립 방안과 별도의 기술적 구축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손동유와 권용찬(2013)은 구술기록을 위해 구술에 대한 인식, 환경, 프로세스, 기법 등의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고 윤택림(2016)은 공공의 관점에서 연구자가 구술인터뷰에 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구술 전문가는 자신이 수집한 구술자료를 다른 연구자나 일반인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외의 경우, Ritchie(2003)는 국가가 광범위한 구술 역사 기록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기술의 중요성에 강조하였으며, Christel, Richardson, & Wactlar(2006)은 웹 포털에 텍스트 검색과 구술인터뷰를 제공함으로써 구술기록 아카이브의 유용성 확장을 확인하였다.

보존 처리에 관한 연구로 김명훈(2010)은 디지털 구술기록의 생산·정리·보존이 체계적이면서 세밀한 절차를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박해준과 김익한(2019)은 구술기록관리시스템의 구술데이터 구성요소와 엔티티 관계도를 설계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국외의 경우, Coles(1988)는 구술기록을 일차적인 물리적 형태로 정리하되 시리즈 안에 있는 아이템들은 집합 정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구술 기술의 올바른 보존을 위해 아이템 원본의 유무와 역사적 정보, 범위와 검색 도구 등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Swain(2003)은 아키비스트와 사서가 여타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함으로써 구술기록의 적시성 문제를 해결하고, 보존 프로세스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Harhai(2017)은 공공도서관이 디지털 구술 프로젝트를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디지털 사용능력을 고취시켜 지역의 구술 디지털 컬렉션을 개발할 수 있으며 구술의 생산, 보존 및 활용이 디지털 사용능력, 의사소통, 협업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이 구술기록 관련 선행연구는 구술기록의 생산, 수집, 정리, 기술요소, 보존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졌으며, 구술기록의 수집 및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사서와 아키비스트 간의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국내 공공도서관의 구술기록에 대한 관리 방안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점차 확장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구술기록물 수집 및 활용, 보존을 위한 개선방안을 새로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공공도서관 구술기록물의 의의

### 2.1 구술기록의 개념

구술기록은 경험자의 기억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채록하여 그것을 학문 연구자료로 구체화하기 때문에 채록 목적과 수행방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구술사는 구술기록에 근거한 역사 서술이며 구술사 분야의 발전에 따라 구술기록의 생산, 관리, 보존, 활용 등이 여러 학문 영역에서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윤택림, 2012). 구술기록물은 면담자 앞에서 구술자가 본인의 과거 경험을 현재로 재현하는 작업을 통해 얻은 기록으로 구비전승(oral tradition), 구술증언(oral testimony), 구술생애사(oral life history)를 포함한 회고적 성격의 구술사로 구분된다. 구비전승은 여러 세대에 걸쳐 말(oral)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종교적 주문이나 설화 같은 구비문학, 마을에 관한 이야기 등의 기록되지 않은 역사적 지식에 관한 이야기, 신화처럼 개인적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한다(한국구술사연구회, 2005). 구술증언은 과거 특정 사건과 경험을 현재로 불러낸 것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담이나 목격담 등을 포함하므로 직접 경험과 간접경험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윤택림, 함한희, 2006). 구술생애사는 개인이 지나온 삶을 자신의 기억으로 복원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기록이다. 이로 인해 구술증언과 달리 생애사는 개인의 삶 자체에 초점을 두어 그 기억에 의존한다(김영, 설문원, 2015).

### 2.2 공공도서관의 구술기록

공공도서관은 지역민의 문화 향유 프로그램 제공, 아웃리치서비스, 주민 편의시설과 공간, 커뮤니티센터, 제3의 장소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 사회를 위한 복합문화, 학습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윤희운, 김종애, 오선경, 2020). 기존 도서관의 기능에 더해 각 지역의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협력과 연대의 기초적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는 창조의 공간이면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동체적 가치의 공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구술은 지역민들이 이야기를 전승하는 기초적 단위이면서 삶의 논리를 확산시키는 본질적 가치이다. 구술은 문화 현상으로서 지역민들의 몸짓과 태도, 그리고 행동에 부여된 구조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내재된 인간적 본위인 셈이다.

지역 사회의 구술 프로젝트는 지역 미시사를 자연스럽게 수집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구술사에 기여한다. 여기서 수집된 구술기록물은 커뮤니티의 역사적 저장소로 기능하고, 그것이 공공도서관 커뮤니티 스토리텔링의 축으로서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구술기록은 중요한 정보 출처로서 1차 자료가 되거나 그러한 종류의 대들보로 자리한다. 요약하자면 공공도서관은 구술사에서 미시사를 구축하는 가장 경제적 방법인 것이다(Harhai, 2017).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역사 보존을 위해 기존의 전통적 역할 이외에도 구전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소수 민족을 포함한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이야기를 재현하고, 지역 사회의 기억을 보완할 수 있다(Baum, 1970). 도서관에서 구술기록은 기억의 흐름에서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며,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문화 및 역사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구술기록의 보존은 그 자체로 국가 유산의 지식 창출과 활용이면서 지역 문화의 가치향상을 도모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 상호 연관된 관계의 집합체로서 사회적 활동에 공동 참여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장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 3. 국내 공공도서관 구술기록물 관리 현황 분석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구술기록물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11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구술기록 담당자에게 구술기록물 관리에 대한 온라인 및 대면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정연경 외, 2019)의

연구와 주혁(2012)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담당자에게 우선으로 참여 의사를 묻고, 이에 응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전달하였으며 11부의 설문지가 분석되었다. 심층 면담은 설문지 응답자 중 인터뷰에 응한 6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반 구조화 방식을 원칙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심층 면담 자료는 각 면담지마다 내용을 분석하고 범주를 나누어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구술기록물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3.1 담당자 설문조사 분석

이들 공공도서관의 소재지는 서울(1개), 경기권(7개), 충청권(1개), 경상권(2개) 기관이었다. 경기권의 경우, 도시 재개발에 따라 구도심 지역민의 경험을 구술채록·정리함으로써 문헌 사료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구술기록물 수집과 구술채록에 참여한 기관이 많았다.

공공도서관 구술기록물 관리에 소속된 부서로는 사서직 9개 기관(81.8%), 기록연구직 1개 기관(9.1%), 행정직 1개 기관(9.1%)이었다. 구술기록물을 담당 인원은 1인이 7개 기관(63.6%), 2인이 1개 기관(9.1%), 전담인력 없음이 3개 기관, 기타(27.3%), 사서 1인에 구술채록동아리 10명 내외로 나타났다. 업무 담당자의 학부 전공으로는 문헌정보학 9개 기관(81.8%), 기록관리학 1개 기관(9.1%), 기타 국어국문학 1개 기관(9.1%)이었다. 공공도서관 근무 기간은 1년 미만인 5개 기관(45.5%), 1년 이상 2년 미만인 4개 기관(36.3%), 5년 이상 1개 기관(9.1%), 최근 근무 시작이 1개 기관(9.1%)이었다.

구술기록물만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고 답변한 도서관이 2개 기관(18.2%), '없다'고 응답한 기관이 9개 기관(81.8%)이었다. 대부분이 도서관의 업무 외에 추가로 구술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구술기록물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으로는 1명이 2개 기관(27.3%), 2명이 1개 기관(9.1%)으로, 나머지 7개 기관(63.6%)은 전문인력이 없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수집/생산에 4개 기관(20%), 정리/활용에 5개 기관(25%), 보존/처리에 3개 기관(15%), 이외의 행정 업무에 4개 기관(20%), 기타 2개 기관과, 도서관 공모사업의 성격으로 참여했을 뿐 전문인력이 아니라는 답변 1개 기관, 구술채록 동아리 관리 및 운영 1개 기관, 총 4개 기관(20%)으로 나타났다.

구술기록관리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어려움은 구술기록물 정보 부족 2개 기관(12.5%) 구술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부족 7개 기관(43.8%)과 구술기록물의 가치 판단 문제 6개 기관(37.5%), 면담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미흡 1개 기관(6.2%)을 들었다.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기관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이 8개 기관(72.7%), 기타 문항에 공모사업 1개 기관, 추가경정예산 1개 기관, 없음이 1개 기관, 총 3개 기관(27.3%)이 응답하였다. 예산 부족에 대한 방안으로는 기관의 예산 중 다른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도서관이 6개 기관(54.5%), 기부금 조달이 1개 기관(9.1%),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기관 1개 기관, 예산 수립 1개 기관, 수집 축소가 1개 기관, 총 3개 기관(36.4%)으로 조사되었다.

### 3.2 공공도서관 구술기록물 관리 영역별 상황 분석

#### 3.2.1 수집 및 생산

구술기록물 수집 및 생산 현황 파악에 앞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매뉴얼 및 지침여부와 수집의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먼저 구술기록물 수집에 대한 매뉴얼 또는 구체적 지침을 묻는 질문에 1개 기관(9.1%)이 있었고 나머지 10개 기관(90.9%)은 없어서 대부분 도서관이 구술기록물의 체계적인 매뉴얼과 구체적인 지침 없이 구술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의 문제점은 예산 문제 3개 기관(12.5%), 내규 문제 1개 기관(4.2%), 시스템 문제 4개 기관(16.7%), 인력의 부족 7개 기관(29.1%), 전문성 부족 6개 기관(25%), 인식 부족 2개 기관(8.3%), 기타로 없음 1개 기관(4.2%)이 있었다(<표 1> 참조).

<표 1> 구술기록물 관리 영역별 상황 분석(수집·생산)

		응답수	응답률(%)
수집 매뉴얼, 지침 유무	있다	1	9.1
	없다	10	90.9
수집의 문제점*	예산의 문제	3	12.5
	내규 문제	1	4.2
	시스템 문제	4	16.7
	인력의 부족	7	29.1
	전문성 부족	6	25
	인식 부족	2	8.3
	기타	1	4.2

\* 복수응답 문항

### 1) 매뉴얼에 관한 의견

구술 수집에 대한 매뉴얼 또는 구체적 지침이 11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구술기록물이 제대로 관리되기에 한계가 있으며, 구술기록물 관련 매뉴얼, 정책,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술자료의 매뉴얼은 따로 없고, 저희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조례 규칙은 있어요. 매뉴얼이 없어서 구술채록단이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매뉴얼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녹음을 해도 되는지, 어떤 확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구술채록을 하신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매뉴얼이 있다면 좀 나왔을 것 같아요.” [A도서관]

“외주 업체에서 만들어준 매뉴얼이 있는데, 새로운 외주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외주한테 이 (매뉴얼)을 그대로 해주세요. 이거는 과업 지시사항에다가 넣은 건지, 인코딩에다 명시를 한 것인지, 이 프로세스까지는 적용을 하는 게 없지 않을까요? 외주 업체도 이걸 활용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B도서관]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태예요. 사실 향토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매뉴얼을 만드는 게 전문인력이 있지 않는 한 그 자체가 일이고 쉽지가 않습니다.” [C도서관]

“매뉴얼이라는게 사실 구술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매뉴얼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까지 구축할 수 있는지는 숙련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 숙련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초기에 접근할 때 모든 것이 낯설다 보니 구술자료 매뉴얼이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C도서관]

### 2) 수집에 대한 의견

각 도서관의 구술기록물 수집의 주요 목적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수집, 도서관 이용 활성화, 지역 역사 보존, 지역의 정체성 확립,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지역 콘텐츠 개발, 간행물 출판, 지역 도시 재생 순이었다. 구술기록물 수집은 지역민 인터뷰, 구술채록단 활동, 자체적 수집으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문제점은 인력의 부족, 전문성 부족, 시스템 문제, 예산의 문제, 인식의 부족을 들었다. 이와 관련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술자를 선정하는 게 어려웠어요. 무작정 경로당을 가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예요. 기관이랑 시민들이 같이 하는 경우에는 시민들이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기관에다가 맡기는 거죠. 하지만 공무원들도 개인 자료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구술자 후보군을 정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A도서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 외주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어요. 이때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관리자로서 조율을 하고, 질문지를 구성하고 하는 게, 도서관에서 수집 인력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게 제일 좋지만 인력이 없어서 외주 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결국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아카이브 담당을 혼자 하고 있는데 올해 하는 사업만 여러 개 됩니다.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외주업체에 용역을 주는 거죠. 인력만 있다면 수집 사업은 자체 인력으로 하는 게 좋죠.” [B도서관]

“아직은 초기 단계라 큰 어려움은 없지만 면대면 구술 작업을 하면서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D도서관]

“수집 과정에서 제일 큰 어려움은 인력의 부족입니다. 기록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진행해줄 전문인력의 확충이 너무나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수집 자료의 보관 등이나 공유 등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도서관]

“구술 대상자 선정이 어렵습니다.” [F도서관]

구술기록물 수집 및 생산 면에서 다수 도서관은 기존 업무 외에 구술 수집이라는 업무 자체의 부담을 호소하였다. 또한, 구술기록은 그 특성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기에 이를 위한 재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구술기록의 관리 매뉴얼과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구술기록물이 제대로 관리되기에 한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아가 구술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결국, 현재와 같이 구술자료 관리 매뉴얼과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구술 기록물이 제대로 관리되기에 한계가 있으며 구술 기록물 관련 매뉴얼, 정책, 지침이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3.2.2 정리 및 활용

먼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도서관의 구술기록물 이용률과 구술기록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후, 정리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았고, 이에 대한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술기록물 정리·활용에 대해 현재 이용률은 대체로 높은 편이 3개 기관(27.3%), 보통이 2개 기관(18.2%), 낮은 편이 4개 기관(36.3%), 매우 낮은 편이 2개 기관(18.2%)으로 나타났다. 구술기록물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높은 편이 3개 기관(27.3%), 보통이 2개 기관(18.2%), 낮은 편이 4개 기관(36.3%), 매우 낮은 편이 2개 기관(18.2%)으로 공공도서관 구술기록물 이용률이나 인식은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구술기록물 인식 확대를 위해 필요한 요소로 홍보가 7개 기관(30.4%), 보존 시설 확보가 3개 기관(13%), 전문인력 배치가 8개 기관(34.8%), 구술기록물 관련 시설 설치가 2개 기관(8.7%), 법 개정이 2개 기관(8.7%), 이용자 세분화를 통한 이용자별 요구 파악 1개 기관(4.4%)으로 대답하였다. 대부분의 담당자들은 전문인력 배치를 강조하였고 구술기록물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구술기록물 활용 및 서비스의 난점으로는 구술기록물의 정보 부족이 4개 기관(11.1%), 구술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부족이 7개 기관(19.4%), 구술기록물 가치 판단 문제가 2개 기관(5.6%), 제도적 뒷받침의 문제가 2개 기관(5.6%), 예산 문제가 4개 기관(11.1%), 아이디어의 부족이 2개 기관(5.6%), 전문성 부족이 6개 기관(16.6%), 인력 부족이 5개 기관(13.9%), 인식 부족이 3개 기관(8.3%), DB 구축의 어려움이 1개 기관(2.8%)이었다.

구술기록물 정리 현황에 관한 질문에 목록 비치 4개 기관(22.2%), 분류번호 부여가 5개 기관(27.8%), 구술기록물 단순 보관 및 정리 4개 기관(22.2%), 특수 포맷처리가 3개 기관(16.7%), 기타로는 없음이 1개 기관, 디지털 파일로 관리하며 일부는 아카이브 시스템 등록이 1개 기관, 총 2개 기관(11.1%)으로 응답하였다.

구술기록물 수집 및 관리, 서비스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구술채록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이 3개 기관(10.7%), 구술기록 정리 및 기술의 한계가 8개 기관(28.6%), 구술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저작권 등 법적 문제가 4개 기관(14.3%), 구술기록물 보존을 위한 기술 및 공간 부족이 4개 기관(14.3%), 구술기록물 보존을 위한 기술 및 공간 부족이 4개 기관(14.3%), 구술채록 기관의 네트워킹 부족이 3개 기관(10.7%), 예산 문제가 4개 기관(14.3%), 기타로 구술기록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이 1개 기관,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데 드는 시간과 인력 부족이 1개 기관, 총 2개 기관(7.1%)이었다(<표 2> 참조).

<표 2> 구술기록물 관리 영역별 상황 분석(정리·활용)

		응답수	응답률(%)
구술기록물 이용률	매우 높은 편이다	0	0
	대체로 높은 편이다	3	27.3
	보통이다	2	18.2
	낮은 편이다	4	36.3
	매우 낮은 편이다	2	18.2
구술기록물 인식	매우 높은 편이다	0	0
	대체로 높은 편이다	3	27.3
	보통이다	2	18.2
	낮은 편이다	4	36.3
	매우 낮은 편이다	2	18.2
구술기록물 인식 확대를 위한 필요한 요인*	홍보	7	30.4
	보존시설 확보	3	13.0
	전문인력 배치	8	34.8
	구술기록물 관련 시설 설치	2	8.7
	법 개정	2	8.7
	기타	1	4.4
구술기록물 활용 및 서비스에 어려운 점*	구술기록물의 정보 부족	4	11.1
	구술기록물 체계적인 관리 부족	7	19.4
	구술기록물의 가치 판단 문제	2	5.6
	제도적 뒷받침의 문제	2	5.6
	예산의 문제	4	11.1
	아이디어 부족	2	5.6
	전문성 부족	6	16.6
	인력의 부족	5	13.9
	인식의 부족	3	8.3
기타	1	2.8	
자료 정리 현황*	목록비치	4	22.2
	분류번호 부여	5	27.8
	보존연한 표시	0	0
	구술기록물 단순 보관 및 정리	4	22.2
	특수 포맷처리	3	16.7
	기타	2	11.1
구술 수집 및 관리, 서비스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구술 채록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	3	10.7
	구술기록 정리 및 기술의 한계	8	28.6
	구술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저작권 등 법적 문제	4	14.3
	구술기록물 보존을 위한 기술 및 공간 부족	4	14.3
	구술 채록 기관의 네트워킹 부족	3	10.7
	예산 문제	4	14.3
기타	2	7.1	

\* 복수응답 문항

## 1) 구술기록물 이용률과 인식에 대한 의견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구술기록물 이용률과 인식이 미흡하다고 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구술기록물이 제대로 관리되기에 한계가 있으며 구술기록물의 이용률과 인식을 재고하기 위해 홍보의 필요성과 접근성이 언급되었다. 이와 관련된 면담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음에는 왜 이런 프로그램만 기획하는 건가요? 문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기록 관련 프로젝트만 진행하는지 불만이 많았다면 현재는 많은 관심으로 구술사를 재밌게 봐주고 있어요. 도서관 자료실 1층에 구술 전시를 함으로써 접근성으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A도서관]

“인식이 높지는 않은 편이에요.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네요? 하고 놀라고 좋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구술자를 만나봐야겠다고 직접 연락을 신청하기도 하고 그런 작용으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의미는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찾으시는 분들이 간혹 일반인 분들 중에 궁금했던 분이 전문가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직접 만나 뵙고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해놓은 채록해놓은 자료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거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그런 용도로 채록을 했기 때문에 소개를 하기 위한 채록이었기에 가능한 건데 000에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채록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용이랑 연결되는 관점은 아니에요.” [C도서관]

“현재는 구축한 자료가 자서전 정도라 이용률이 거의 없어요. 본격적인 홍보가 되지 않아 인식이 낮아요.” [D도서관]

“어떤 주제의 단행본이 만들어지면 출판기념회, 전시회, 마을 축제 등을 통해서 마을주민들과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의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E도서관]

## 2) 구술기록물 정리 현황

구술기록물 정리 현황에 있어서 대다수 도서관이 컴퓨터 외장 하드나 외주업체에 의해 단순보관 형태로 해당 자료를 저장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대부분의 구술기록물은 단순 파일 형태로 저장되거나 외장 하드에 보관되고 있었으며, 해당 기록의 정리를 위한 장치를 구비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관련된 면담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술자료는 녹취록 같은 자료를 외장 하드에 저장을 하고 있어요. DB 구축이 되면 이관할 예정입니다.” [A도서관]

“새로운 주제 하나당 10명 정도 1회만 하기 때문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내 영상이기 때문에 정리할 게 많이 없어요. 수집한 기록물을 납품할 때 정리를 해서 납품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찍은 사진 자료를 정리해서 주기 때문에 관리는 보존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스템에 올리지는 않아요.” [B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채록한 것을 그렇게 해서 1차 초안 정리한 것을 완성도 있게 해서 올릴 수 있는거 나눠져 있는데, 백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적으로 컴퓨터에 관리를 하고 있고 올려져 있는 게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져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채록한 자료들을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도서관리시스템 안에 관리할 수 있는게 많이 약해요. (구술기록물은) 도서관리시스템이랑 맞지 않아요. 여기는 도서자료에 특화되어 있는 거고 구술자료들에 대해서는 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 자체 목적이 달라요. 그거는 따로 외장 하드랑 내부적으로 저장하고 있어요.” [C도서관]

### 3) 구술기록물 활용 현황

구술기록물 활용은 단행본 간행, 전시, 지역 콘텐츠 확보 및 개발, 온라인 활용, 학술 연구지원 순으로 이루어졌다. 도서관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술기록물은 단행본, 자료집, 자서전이였다. 또한, 활용 측면에서는 구술 채록한 자료들을 타 기관과 타 부서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술기록 연구를 위해 협조 요청하는 기관에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몇몇 기관은 구술기록물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관련된 면담 내용은 아래와 같다.

“타 기관과 부서에 (구술기록을 채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도서관]

“책자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모든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나오는 상태예요.” [C도서관]

“도서관 내 지역, 향토코너에 비치되며, 구술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D도서관]

“단행본 등의 자료로 엮어서 원하는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관련 분야의 연구를 위해서 협조 요청하는 곳에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도서관]

### 4) 구술기록물 서비스의 어려움

구술기록물 서비스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전문인력 배치와 도서관 직원의 적극적 추진 의지와 관심,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과 설비 구축이 시급하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관련된 면담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서들이 구술자료를 정리하고 취급하는 건 무리예요. 전문인력과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관리 체계가 각 기관마다 자기들의 스타일대로 가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표준화된 게 없기 때문에 표준안을 따라서 관리 한다는 것 보다는 경험상의 그런 것을 통해 유지가 되고 있어요.” [C도서관]

“도서관 직원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D도서관]

“만들어진 구술자료를 제대로 서비스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제대로 서비스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설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E도서관]

### 5) 홍보에 관한 의견

구술기록물 활용에 있어서 구술채록한 자료들을 타 기관과 타 부서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구를 위해 협조 요청하는 기관에 제공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부 기관은 구술기록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전시회에 활용하고 있었는데 공공도서관의 구술기록물 활용에 있어서 이용자의 인식과 이용률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면담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음에는 홍보를 위해 다른 팀과 협의 하는 과정도 힘들었어요. 홍보 같은 경우에 버스 홍보부터 시작해서 다른 부서랑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또 끝나고 나니 홍보팀이나 다른 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저희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서로 협력을 하게 된거죠.” [A도서관]

“구술사 자료 그 자체만으로는 관심이 부족해요. 이걸 이용자에게는 굳이 이런 자료가 아니더라도 흥미롭지 않은 거죠. 굳이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전시라던가 아니면 기획을 해서 홍보를 해야지만 이거에 대한 활용도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 못해 이런 거에 대한 결과 발표회라던가 전시라던가 이런 뭔가를 연계를 해 나갔을 때 구술자료에 대한 흥미 유발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이벤트적인 요소를 끌어냈을 때 구술자료에 대한 이런 게 있다더라 라는 소문이 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구축만 해놓고 자기만족으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예요.” [C도서관]

“구술자료의 특성은 알고 싶어 하는 누군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기록 자체에 집중하는 측면이 있다보니 이용자이나 지역 주민들이 그거를 알아야 해?라는 욕구가 아니기 때문에 애가 있다는 것에 홍보를 해서 알려야 보는 게 있고 이용성의 측면에서 보면 대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도서관]

구술기록물 정리 및 활용은 단행본 발간, 전시, 지역 콘텐츠 확보 및 개발, 온라인 활용, 학술 연구지원의 순으로 답변하였다. 도서관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술기록물은 단행본, 자료집, 자서전이 있었지만, 구술기록물의 이용률과 인식에 있어서 구술기록물을 활발하게 수집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구술기록물의 이용률이 낮은 편으로 구술기록물의 인식 확대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주목도가 높은 구술기록 콘텐츠 구성과 상시 기획 전시, 상설전시, 구술사 교육, 마을 아카이브 프로그램을 세밀히 구성하여 지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들이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3.2.3 보존 및 처리

구술기록물 보존·처리에 대해서는 원자료 관리, 보존전략, 보존시스템,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객관식으로 구성하였고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술기록의 원자료 관리는 단행본이 7개 기관(31.8%), 녹취록이 6개 기관(27.3%), 사진 자료가 5개 기관(22.7%), 동영상 자료가 2개 기관(9.1%), 기타로 없음이 1개 기관, 단순보관이 1개 기관, 총 2개 기관(9.1%)으로 나타났다. 구술기록 보존전략으로는 표준 보존 포맷의 개발이 4개 기관(36.4%), 보존 메타데이터의 표준 정립이 3개 기관(27.2%), 기타 의견으로 자료 보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 1개 기관, 자료 부족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음이 1개 기관, 의견 없음이 2개 기관, 총 4개 기관(36.4%)이 응답하였다. 구술기록 보존시스템 관련해서는 보존 관리 시스템 개발이 5개 기관(23.8%), 보존 검색시스템 개발이 4개 기관(19.1%), 보존에 대한 통합 검색시스템 개발이 5개 기관(23.8%), 보존에 관한 평가 시스템 개발이 1개 기관(4.76%), 보존에 관한 백업 시스템 개발이 3개 기관(14.2%), 기타 의견으로 보존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없음이 1개 기관, 문화자원 아카이브 시스템 재개발이 1개 기관, 의견 없음이 1개 기관, 총 3개 기관(14.2%)으로 나타났다.

구술기록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구 및 규정 마련이 3개 기관(8.8%), 전문성 확보가 8개 기관(23.5%), 인력 문제 해결이 6개 기관(17.7%), 시설 및 장비 확보가 5개 기관(14.7%), 홍보 전략 개발이 5명(14.7%), 인식 확대가 4개 기관(11.8%), 예산 확보를 3개 기관(8.8%)이 대답하였다. 구술기록 보존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조직 및 규정 마련이 5개 기관(15.6%), 전문성 확보가 7개 기관(21.9%), 인력 부족이 6개 기관(18.8%), 시설 및 장비 확보가 4개 기관(12.5%), 홍보 부족이 4개 기관(12.5%), 인식 부족이 4개 기관(12.5%), 기타 의견으로는 초상권 및 저작권 등 재배포 및 대역에 관한 사항에 인한 서비스 제약이 1개 기관, 장기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는 DB구축 미비가 1개 기관, 총 2개 기관(6.2%)이 응답하였다(<표 3> 참조).

〈표 3〉 구술기록물 관리 영역별 상황 분석(보존·처리)

		응답수	응답률(%)
원자료 관리*	단행본	7	31.8
	녹취록	6	27.3
	사진 자료	5	22.7
	동영상 자료	2	9.1
	기타	2	9
구술기록 보존 전략	표준 보존 포맷의 개발	4	36.4
	보존 메타데이터 표준 정립	3	27.2
	기타	4	36.4
구술기록 보존시스템 의견*	보존에 관한 관련 시스템 개발	5	23.8
	보존에 관한 검색시스템 개발	4	19.1
	보존에 관한 통합 검색시스템 개발	5	23.8
	보존에 관한 평가 시스템 개발	1	4.76
	보존에 관한 백업 시스템 개발	3	14.2
	기타	3	14.2
구술기록의 보존에 미치는 요인*	기구 및 규정 마련	3	8.8
	전문성	8	23.5
	인력 문제	6	17.7
	시설 및 장비 확보	5	14.7
	홍보 문제	5	14.7
	인식 부족 문제	4	11.8
	예산 문제	3	8.8
	기타	0	0
구술기록 보존에서 겪는 어려움*	기구 및 규정 마련	5	15.6
	전문성	7	21.9
	인력 문제	6	18.8
	시설 및 장비 확보	4	12.5
	홍보 문제	4	12.5
	인식 부족 문제	4	12.5
	기타	2	6.2

\* 복수응답 문항

구술기록물 관리·보존은 담당자들의 순환 근무로 인해 인수인계 문제, 시스템 문제, 데이터 문제, 백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심지어 구술기록 결과물 책자가 도서관 내 공간을 차지하는 문제도 있어서 구술기록물 보존을 위한 대책으로는 보존 시설 확충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면담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자료 관리 현황

대부분의 원자료는 외장하드에 단순 저장되거나 당시 생산되었던 자료들을 외주업체가 정리하고 있었다. 납품, 인수인계와 순환 근무 등으로 인한 유실의 문제, 파일 형태로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을 뿐, 장기보존을 위해 어떠한 장치도 구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행본, 전서 자료, 녹취자료(처음에 작업했던 자료들만 있어요), 녹음본이랑 녹취록이 있고, 타이핑 되어 있습니다. 외장 하드에 저장하고 있어요.” [A도서관]

“원자료라고 하면 구술 당시에 생산되었던 로그들 그 자료 들은 따로 정리해서 납품을 받고 있어요.” [B도서관]

“체계의 문제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원자료 및 1차 자료들이 관리가 잘 되는 한편, 담당자들의 인수인계에 따라 달라요. 그때 유실되는 자료들이 꽤 있어요.” [C도서관]

“아직 구술자료 채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의 자서전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D도서관]

“파일 형태로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을 뿐 장기 보존을 위한 어떠한 장치도 구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도서관]

## 2) 보존에서 겪는 어려움

보존상 어려움과 관련한 면담 내용은 원자료의 관리문제, 시스템 문제, 백업 문제, 보존을 위한 전문 교육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민감한 개인정보와 저작권 문제 등으로 구술기록물 활용에 제약이 있으며, 전문 보존시설과 시스템도 미비해 사실상 보존이 불가능한 형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 지 고민이 되는 문제예요. 또, DB 구축이 안되고 있어서 장기보존이 안 되고 있습니다.” [A도서관]

“데이터를 외장메다 하던 컴퓨터에 하더라도 유실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런 저장 매체 상 달라지는 것 책자는 책자대로 공간 차지하는 문제가 있고,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나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으나 스스로 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어떤 것도 완벽한 것은 없어요. 저희도 2중, 3중 백업을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여기 백업한 게 버전 차이가 생기는데 이러한 버전 차이에 대한 관리문제가 또 생기는데 또 정리하는 일련의 작업을 해야 합니다.” [C도서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저작권 문제가 걱정됩니다.” [D도서관]

“전문적인 보존시설도 없으며, 보존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E도서관]

## 3) 보존에 관한 의견

보존과 관련해서는 외장하드에 단순 저장, 당시에 생산되었던 자료들을 인수인계와 순환 근무로 인한 유실의 문제를 들었다. 그리고 구술과 관련하여 비전문가인 사서가 구술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견, 민감한 개인정보와 저작권 문제 등으로 활용에 제약이 있으며, 구술기록물 관리 및 보존시설의 대용량의 보관시스템 확충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반부터 구술기록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때 알았으면 관리를 했었을 텐데, 현재는 대부분의 구술자료들이 소실되어(녹음 및 녹취록을 해서 용량이 차서 삭제하거나 있는 것도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 기술적 결함이 있었어요. 지금은 녹음기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A도서관]

“시스템이 제일 필요합니다. 현재의 오메카로는 관리하기 힘들어요. 전자기록의 보존적 측면에서 시스템이 도입되는

게 필요합니다.” [B도서관]

“개인정보와 저작권 부분 해결이 필요합니다.” [D도서관]

“대용량의 보관시스템 (각각의 도서관에서 보관하지 않고 지역별로 원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존재하면 좋겠습니까.)” [E도서관]

### 3.2.4 기타 사항

구술기록물을 관리하는 담당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구술사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제대로 된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도서관이 보존영역 확장 계획이 있었지만, 전문인력 충원, 예산 문제, 보존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한 기타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구술기록물 관리를 위한 교육

구술기록물 관리 교육에서 담당 직원들은 관련 교육의 미비로 인해 개인적으로 공부하거나 진행 방법을 서로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제대로 된 구술 관련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를 위한 교육은 없는 상태예요. 1년에 한 번씩 아카이브 강좌를 통해 제공하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전문적으로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진행 방법을 공유하는 상태입니다.” [A도서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별도의 교육이 없는 상태입니다.” [B도서관]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런 교육을 사람을 키워내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맡았을 때 혼자 이런 저런 걸 알아보던가 개인이 해야만 하는 부분이에요.” [C도서관]

#### 2) 구술기록물 보존영역 확장 계획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보존영역 확장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전문인력의 구성, 설득의 논리, 예산 문제로 인해 어렵게 생각하였다. 이와 관련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녹음만 하고 있지만 이제는 영상으로 촬영하고, DB 구축도 하고 조금씩 확장할 계획입니다.” [A도서관]

“지금 정도의 구술자료를 이용한 콘텐츠 사업은 계속하겠지만 인력 구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구술 작업에 많은 힘을 주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B도서관]

“지역사, 마을 아카이브를 결합을 하고 싶다는 욕구는 있는데, 관리 인력이나 예산이나 공을 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력이 안되다 보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또, 구술자료를 공공도서관에서 했을 때 어떤 점에서 이용자들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지, 설득에 대한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C도서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장기적인 목표로 수집, 생산, 활용, 보존영역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D도서관]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E도서관]

### 3) 업무에 가장 필요한 사항

무엇보다도 구술기록물 관련 업무에 가장 필요한 사항은 매뉴얼 제공, 교육 프로그램 참여, 홍보 전략, 전문인력과 예산 확보였다. 이와 관련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DB 구축할 때 접근성 문제와 매뉴얼이 가장 필요합니다. 홍보를 해야 합니다.” [A도서관]

“전문인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B도서관]

“전문화된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공도서관은 그런 부분에 전문화된 인력을 그 업무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숙련도나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겨요. 또 발령이나 변동이 되기 때문에 업무들간에 차이가 날수밖에 없고 담당자들이 누구냐에 따라 어느 시기는 르네상스를 엮다가 어느 시기에는 암흑기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항상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문인력이 제일 필요한 거죠. 2년에서 3년마다 순환 근무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점이죠. 전문인력과 예산과 정책이 가장 필요해요.” [C도서관]

“인력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인력과 예산의 수반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도서관]

“전문인력의 부재와 시스템의 부재가 가장 필요합니다.” [E도서관]

“지역의 향토자료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면 다양하고 유용한 콘텐츠가 되고 여러 가지 방면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나 지자체에 속한 도서관 스스로가 구술자료 보존 등에 관한 문제에 관심이 있을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인식 부족이 가장 크며, 도서관 예산 자체도 시중에 출판되는 도서도 넉넉하게 구매하여 비치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서관 자체가 아직까지는 덩치만 커졌지 내실을 다지는데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인식 부족, 관련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 부족, 예산이 필요합니다.” [F도서관]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에서 나타난 공공도서관 구술기록물 관리 현황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역사와 다양한 자료를 보존하고 구술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활용·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공공도서관은 구술기록물 관리 전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첫째, 구술기록물 매뉴얼과 구술기록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구술기록물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이 부족하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구술기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구술채록사업을 통해 다양한 구술기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구술기록물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부족이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넷째, 구술기록물 담당자들의 순환 근무로 인해 시스템이나 데이터 관리, 백업 문제가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므로 구술기록의 보존 시설을 확충하고 구술기록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4. 공공도서관 구술기록물 관리 개선방안

### 4.1 구술기록물 수집을 위한 정책 및 매뉴얼 수립

공공도서관은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수집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민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기록물로 체현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도서관의 구술기록물 수집은 채록·지역민들의 자발적 참여·녹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수집·생산 관련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에서 구술기록을 수집하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비효율적이기에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구술기록은 특정 활용 목적에 의해 경험이 발생한 시간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형성된다. 즉, 구술기록은 각 기관의 관리 및 활용 목적에 의해 수집되므로 수집 단계부터 관리 영역에 포함된다(권미현, 2004). 이 맥락에서 공공도서관의 구술 수집은 그 자체로 기록물의 기초 정책 수립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구술기록물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반영한 단계별 기록 수집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프로젝트에 알맞은 기록물의 수집범위를 지정하여 그 역사적·지리적·문화적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이후 수집 전략 및 단계 실행 과정에서 프로젝트 상 요구되는 사항에 발맞추어 기록물을 수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집 평가 및 활용 단계에서 수집된 기록물이 수집 목적과 부합하는지 대조하고 어떤 방식의 서비스로 해당 자료를 활용할 것인지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정책은 수집 대상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토대로 수집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기록의 수집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인 절차를 제공할 수 있다(엄소영 외, 2017).

본 연구는 구술기록물의 비체계적 관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현재 공공도서관은 구술채록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여 홍보 및 정보 제공, 그리고 연구지원 서비스까지 매우 제한적인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공공도서관은 우선적으로 구술기록물 수집 및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수집 방법별 세부 절차와 관리 지침의 작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구술기록의 제작, 기증, 기탁, 교환, 대여, 구입, 유증 등 수집 방법에 따른 표준 프로세스와 수집 방법별 세부 절차를 지침서로 기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구술기록물 수집·활용·보존 등에 관한 동의서 서식 개발과 구술기록물 관리를 위한 도서관 자료와의 연계 프로세스 또한 수집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 4.2 구술기록물 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구술기록물 관련 담당자들은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세부 심층 면담에서 구술기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진행 방법만을 공유하고 있을 뿐, 별도의 교육이 부재하여 개인적으로 구술기록물 수집·활용·보존을 공부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공공도서관 구술기록물은 전문지식과 전문가의 연구개발 능력에 따라 수집·활용·보존 양상이 상이하므로 학술단체 및 유관 기관의 협력과 지속적인 전문 교육이 요구된다.

본고가 제시하는 구술기록물 교육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은 도서관 사서와 구술기록 전문가간 구술기록물 관리 훈련 프로그램으로 두 전문인력 사이에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구술기록물 수집·활용·보존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상호 간의 교류 및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록물 관리를 위해 국가기관이나 구술 관련 협회와 학회의 참여가 요청된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공공도서관 구술기록물에 대한 매뉴얼과 정책 개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구술 사례집의 발간 및 배포는 도서관의 구술기록물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도서관의 사명의식과 자부심을 제고할 수 있다. 끝으로 공공도서관은 지역 시민들이 참여하여 구술기록물을 수집하는 그 지역 고유의 구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그 지역민의 강력한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어야 할 것이다.

### 4.3 구술기록물 홍보 및 서비스 개선

현재 각각의 도서관 사정에 맞추어 구술 관련 프로그램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의 구술기록물 이용률과 인식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구술기록물의 이용률과 인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추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술 교육과정을 신설하며, 지역민의 도서관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구술기록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라 할 수 있다. 다수 공공도서관이 구술기록의 생산 자체에 몰두할 뿐, 이용자 및 지역 주민에게 구술기록물 활용을 독려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여 생산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은 구술기록 제공 서비스에 있어 구술사 대중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설, 전시회, 간행물의 발간, 참여자 사이 워크숍, 연계 협력의 홍보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해당 지역의 역사나 문화와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로 구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역 시민 구술채록단을 구성하여 교육시키고 실행한 후, 그 결과물을 전시회 또는 간행물로 발간할 필요가 있다.

### 4.4 구술기록물 관리 및 보존 환경 개선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구술기록물 관리·보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구술기록의 열람을 위한 공간과 해당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구술기록물 장기 보존 장비, 보존 용품을 구비하고, 그러한 자료의 장기적 보존을 위한 구술기록 디지털 아카이브와 기타 시설의 확충이 요청된다. 이러한 디지털 아카이브는 구술기록에 대한 온라인 검색, 및 이용자의 접근 등 구술기록물 등록, 관리, 서비스, 백업 등 각 단계별 처리자 접근 권한 설정, 구술기록 생산 기관의 구술기록 링크나 검색 기능 탑재, 이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구현 등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공도서관은 디지털화를 통한 장기적 보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4.5 전문인력 배치

구술기록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과 전문인력의 배치가 시급하다. 구술기록물의 수집·활용·보존을 위한 공공도서관 구술기록물 전문인력 배치는 지역민의 기억을 수집하고 보존한다는 점에서 각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한 역사를 확립하는 기초 작업이다. 여기서 전문인력은 공백의 역사를 잇는 매개체이면서 동시에 주체적 참여자로서 공공도서관에 지역의 역사를 붙여넣는 소명의식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공공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민이 쉽게 모일 수 있는 문화적 허브로 구성한 후, 전문인력 배치에 재정적 지원이 요청된다.

## 5. 결론

오늘날 공공도서관은 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공간으로서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해소하고, 상호보완적인 정보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플랫폼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각 지역의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협력과 연대의 기초적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는 창조의 공간이면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동체적 가치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 맥락에서 구술기록물을 이용해 서비스를 다면화하고 이를 지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책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구술기록물 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구술기록의 개념 및 특성과 공공도서관에서의 구술기록물이 갖는 가치를 정의하고, 그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국내 공공도서관 구술기록물 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공공도서관 구술기록물 개선방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공공도서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전문가들의 공공도서관 구술기록물 수집·활용·보존 개선을 위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취합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분석한 후, 심층 면담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구술기록물 관리 문제점 및 개선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증하였다.

공공도서관의 구술기록물 수집·활용·보존 개선을 위해서 첫째, 구술기록물 관리를 위한 정책과 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구술기록이 효율적으로 수집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술기록물의 수집 및 생산, 이용과 활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요구된다. 셋째, 공공도서관 업무 담당자들의 구술기록물 수집·보존·기록·관리에 대한 전문 능력을 고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공공도서관의 구술기록물 이용률과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의 구술사를 활용한 홍보 전략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공도서관은 구술기록물을 관리·보존할 시설 및 장비의 확충이 시급하다. 특히 다양한 구술기록의 철저한 디지털화를 통한 장기 보존 환경을 마련하고, 그 활용을 다각화하는 방향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구술기록물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업무 담당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시기에 COVID-19의 영향으로 제한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후속 연구로 더 많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양적, 질적 연구를 진행하여 구술사를 통한 지역 사회의 거점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확장해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미현 (2004). 구술사료의 기록학적 관리방법 연구. 기록학연구, (10), 112-144. <https://doi.org/10.20923/kjas.2004.10.112>
- 김귀옥 (2016).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 구술사 연구의 탄생과 역할. 과제. 구술사연구, 7(2), 11-44.
- 김덕목 (2016). 마을기록물의 수집과 활용. 기록학연구, 49, 299-325. <https://doi.org/10.20923/kjas.2016.49.299>
- 김명훈 (2010). 디지털 구술기록의 생산 및 정리·보존 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7-29. <https://doi.org/10.14404/JKSARM.2010.10.1.007>
- 김명훈, 한지혜 (2013).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 수립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36, 153-193. <https://doi.org/10.20923/kjas.2013.36.153>
- 김영, 설문원 (2015). 구술생애사 기록을 통해 본 사회운동참여의 맥락: 밀양 765kV송전탑건설반대운동에 참여한 여성주민들의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4, 101-151. <https://doi.org/10.20923/kjas.2015.44.101>
- 김은영, 강구형 (2012). 구술기록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리방안 연구: 논리적 정리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25, 229-257.
- 박혜준, 김익한 (2019). 구술 기록의 데이터 요소 분석에 의한 구술기록관리시스템 제안사항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59, 79-127. <https://doi.org/10.20923/kjas.2019.59.079>
- 배은희 (2018). 지역 구술기록의 생산과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2), 85-108.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2.085>
- 선영란 (2019). 정부기관과 공공단체가 수집한 구술자료의 현주소. 2019 한국구술사학회 창립 10주년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25-135.
- 손동유, 권용찬 (2013). 체계적인 구술기록 생산을 위한 제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135-158.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1.135>
- 엄소영, 김혜영, 명현, 김용 (2017). 민간 공동체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대구 약전골목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2), 179-205.

- 윤택림 (2012). 왜 구술사인가. 기록인(IN), 20, 18-23.
- 윤택림 (2016). 구술사와 역사학의 어색한 관계: 그 성과와 전망. 구술사연구, 7(2), 45-84.
- 윤택림, 함한희 (2006). 구술사 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윤희윤, 김중애, 오선경 (2020). 대도시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분석과 제언. 정보관리학회지, 37(3), 51-75.  
<https://doi.org/10.3743/kosim.2020.37.3.051>
- 이호신 (200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크코예술정보관의 <예술사 구술채록사업> 운영 현황. 무용역사기록학, 13, 105-130.
- 정연경, 윤택림, 이호신, 이재영, 엄정현 (2019).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타당성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1-1371029-00197-01.
- 정연경, 이재영 (2020). 국가대표도서관의 구술 컬렉션 핵심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2), 53-77.  
<https://doi.org/10.4275/kslis.2020.54.2.053>
- 조용성 (2010). 구술기록의 수집과 아카이브 정책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5), 233-278.  
<https://doi.org/10.20923/kjas.2010.25.233>
- 주 혁 (2012). 근현대 지역자료(문헌과 구술자료)를 보는 시각과 현장조사 방법론: 무슨 자료를 왜, 누구로부터,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구술사연구, 3(1), 47-70.
- 최정은 (2011). 사회적 기억과 구술 기록화 그리고 아키비스트. 기록학연구, 30, 3-55. <https://doi.org/10.20923/kjas.2011.30.003>
- 한국구술사연구회 (2005). 구술사-방법과 사례, 서울: 선인.
- Baum, W. K. (1970). Building community identity through oral history: A new role for the local library. California Librarian, 31(4), 271-284.
- Chancellor, R. & Lee, S. (2016). Storytelling, Self, Society, 12(1), 39-54
- Christel, M. G., Richardson, J., & Wactlar, H. D. (2006) Facilitating access to large digital oral history archives through informedia technologies. Proceedings of the ACM/IEEE-CS Joint Conference on Digital Libraries.
- Coles, Laura & AABC (1988). A Manual for small archives. [Online].  
<https://www.slideshare.net/theresacandy/a-manual-for-a-small-archives>
- Gittins, D. (1983). Let the People Speak: Oral History in Britain. Victorian Studies, 26(4), 431-441. John Abdul Kargbo. 2007. Libraries and local history collections in Sierra Leone, 56(7), 563-572.
- Harhai, M. (2017). Past Events, Current Teens, Future Skills: Producing Digital Oral History. Pennsylvania Libraries: Research & Practice, 5(1), 42-56.
- Kargbo, J. A. (2008). Oral traditions and libraries. Library Review, 57(6), 442-448.
- Ritchie, D. A. (2003). Doing Oral History: A Practical Guide. 2nd ed. Oxford: 106 Oxford University Press.
- Swain, E. (2003). Oral history in the archives: its documentary role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American Archivist, 66(1), 139-158.
- Yap, J. M. & Barsaga, A. S. (2018). Building a timeless audiovisual collection: libraries and archives as repositories of oral history. Library Management, 39, 188-199. <https://doi.org/10.1108/LM-05-2017-0049>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 Eun-hee (2018). Creating and Managing Local Oral Records in Busa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8(2), 85-108.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2.085>
- Cho, Young-Sung (2010). A Study on the Collecting Policy of Oral History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5), 233-278. <https://doi.org/10.20923/kjas.2010.25.233>
- Choi, Jeong-eun (2011). A study on archiving of 'social memory' and oral record: Focused on the role of archivist in the stages of oral record collecting and planning.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0, 3-55.

- <https://doi.org/10.20923/kjas.2011.30.003>
- Chung, Yeon-Kyoung & Lee, Jae-Young (2020). A Study on Developing the Key Factors of the Oral Collection in National Representative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2), 53-77.  
<https://doi.org/10.4275/kslis.2020.54.2.053>
- Chung, Yeon-Kyoung, Yoon, Taek-Lim, Lee, Hosin, Lee, Jae-Young, & Eom, Jeonghyun (2019).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collecting oral material from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11-1371029-00197-01.
- Joo, Hyuck (2012). What kind of materials should be collected, why, from whom and how: the perspective for looking at local materials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and field work method. *Korean Journal of Oral History*, 3(1), 47-70.
- Kim, Duk-Muk (2016). Collecting and using maul records. *Korea Society of Archival Studies*, 49, 299-325.  
<https://doi.org/10.20923/kjas.2016.49.299>
- Kim, Eun-young & Kahng, Gyoo-hyoung (2012). A study on oral history arrangement methods for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Focusing on logical arrangement. *The Asian Culture Studies*, 25, 229-257.
- Kim, Gwi-Ok (2016). The origins, roles, and challenges of oral history in studying Korean modern djhistory. *Korean Journal of Oral History*, 7(2), 11-44.
- Kim, Myoung-Hun & Han, Ji-Hye (2013). A study on the online service of oral history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6, 153-193. <https://doi.org/10.20923/kjas.2013.36.153>
- Kim, Myoung-Hun (2010). A study on creation, management, and preservation process of digital oral rec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0(1), 7-29. <https://doi.org/10.14404/JKSARM.2010.10.1.007>
- Kim, Young & Seol, Moon-won (2015). Localities and Local Archives Managemen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4, 101-151. <https://doi.org/10.20923/kjas.2015.44.101>
- Korea Oral History Study (2005). *Oral history: Methods and examples*. Seoul: Sun-in.
- Kwon, Mi-hyun (2004). A Study on Archival methodology for Oral History Managemen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0), 112-144. <https://doi.org/10.20923/kjas.2004.10.112>
- Lee, Ho-sin (2007). A study on Oral History Project on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Arts. *The Korean Research Journal of Dance Documentation*, 13, 105-130.
- Park, Hye-jun & Kim, Ik-han (2019). A Study on the Suggestion of the Oral Record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Data Element of the Oral Record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9, 79-127.  
<https://doi.org/10.20923/kjas.2019.59.079>
- Seon, Young-Lan (2019). Current State of Oral Materials Collected by 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Public Organization. *Korean Oral History Association 10th anniversary conference*, 125-135.
- Sohn, Dong You & Kwon, Yong Chan (2013). A systematic approach to producing oral rec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1), 135-158.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1.135>
- Um, So-Young, Kim, Hye-Young, Myung, Hyun, & Kim, Yong (2017). A Study on Development of Acquisition Policy for Establishing Private and Community Archive: Focused on Daegu Yakjeon Alle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2), 179-205.
- Yoon, Hee-Yoon, Kim, Jong-Ae, & Oh, Seon-Kyung (2020). Analysis and Implication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Public Libraries in Major C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7(3), 51-75.  
<https://doi.org/10.3743/kosim.2020.37.3.051>
- Yoon, Taek-Lim & Hahm, Han-Hee (2006). *Oral history research methods*. Seoul: Arche.
- Yoon, Taek-Lim (2012). Why an oral history?. *Record(IN)*, 20, 18-23.
- Yoon, Taek-Lim (2016). Analysis on the awkward relationship between oral history and historiography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Oral History*, 7(2), 45-84.